

昌陵의 왕과 왕후 능의 위치 再考*

김 이 순**

- I. 머리말
- II. 창릉과 경릉의 조성
- III. 창릉의 왕과 왕후의 능 위치에 대한 문헌기록
- IV. 석물 양식을 통해 본 능의 위치
- V. 맺음말

I. 머리말

西五陵에 위치한 昌陵은 조선 8대왕 睿宗(1450-1469)과 계비 安順王后(?-1498)의 능으로, 소위 '同原異岡陵'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도 1).¹⁾ 예종과 안순왕후의 능은 29년 차이를 두고 조성되었는데, 비석과 『창릉지』에는 서쪽이 예종의 능이고 동쪽이 안순왕후의 능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능은 각각 다른 언덕에 조성되었지만 모두 艮坐坤向이며 석물 체제가 같기 때문에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왕릉은 장소에서부터 방위, 배치에 이르기까지 풍수사상에 기초를 두었고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

1 조선 왕릉에서 소위 '同原異岡陵'은 같은 능역 안에서 다른 언덕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을 배치했으나 정자각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조성된 능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조성된 능은 세조 광릉, 문종 현릉, 덕종 경릉, 예종 창릉, 성종 선릉, 선조 목릉이 있다. 조선 왕릉 형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COMOS,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 학술 연구』(문화재청, 2007), pp. 13-18 참조.



도 1
昌陵 전경, 서울릉

조선 초기부터 왕실에서 준수하던 ‘五禮儀’ 규범에 따라 신중하게 조성되었다.² 案山과 朝山, 청룡백호 등의 관계 속에서 능의 자리를 잡고, 산의 기운이 모인 정혈에 능침을 정했는데,³ ‘右上左下’의 원칙, 즉 ‘西上東下’ 원칙에 따라 서쪽에 왕의 능을, 동쪽에 왕후의 능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⁴ 이 원칙은 조선시대 내내 지켜졌고, 현재 서울릉에 위치한 德宗(1438-1457)과 昭惠王后(1437-1504)의 敬陵만이 예외적으로 동쪽에 왕의 능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릉과 비슷한 시기에 매우 흡사한 구조로 조성된 창릉 역시 ‘西上東下’의 원칙에서 벗어나 예종의 능이 동쪽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져, 본고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무덤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의궤와 같은 문헌에다 陵主는 물론 조성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그러나 15세기에 조성된 창릉의 경우, 조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을 의궤와 謄錄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탓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4권의 『昌陵誌』에 창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창릉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능에 조성된 석물을 연구하는 것이다.

2 조선시대 왕릉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는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명청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제262호(2009. 6), pp. 69-98 참조.

3 조선시대 왕릉 입지 선정에 반영된 풍수지리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ICOMOS, 앞의 책, pp. 74-78 참조.

4 왕릉에서 좌우의 구별은 보는 이(산 사람) 기준이 아니라 陵主를 기준으로 한다. 즉 동양사상에서 左가 右보다 높아서 ‘左上右下’가 기본이지만, 陰宅에서는 ‘右上左下’로 한다. 왕릉 조성에서 이런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례의’ 흥례의식 치장조에서 “석실(石室)의 능(陵)은 같이 하고 실(室)은 다르게 하면,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右上左下’의 원칙은 왕릉 조성뿐 만 아니라, 종묘에 신주를 부묘할 때도 적용되었는데, 『세종실록』의 ‘五禮儀의 凶禮儀式, 祔廟儀’에 “王后를 아울러 祔廟하면, 왕후의 신주는 왼쪽에 있다”라고 밝혔고, 문종과 현덕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때의 기록에도 “大王位는 서쪽에 있고, 王后位는 동쪽에 있으며”라는 대목이 있다. 『단종실록』 卷11, 2년(1454) 7월 16일.

조선 왕릉은 조선 초에 확립된 규범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에 능의 구조에서는 시기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석물의 경우, 종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조성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능 조성자의 의지에 따라 석물의 크기, 양식, 화강암의 품질 등은 다양하게 변화했다. 때문에 같은 모습의 석물이 없고,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능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조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석물은 단단한 화강암이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덤을 신성시하는 전통 속에서 능의 改修 역시 조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 능 조성 이후의 변동사항까지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석물은 각 능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초 史料라고 하겠다. 창릉의 경우, 능이 조성된 이후 큰 변동 사항 없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나,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에 조성 당시의 문헌을 잃게 되면서 陵主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왕과 왕후의 능은 같은 구조로 조성되어 있지만 29년이라는 조성연대의 차이로 인해 석물 양식이 분명히 다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능 조성 순서의 先後, 즉 陵主를 추정할 수 있다.

창릉의 陵主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덕종 敬陵에서 얻을 수 있다. 세조(1417-1468)의 맏아들이었던 덕종은 동생인 예종보다 12년 앞서 病死하여 서오릉에 묻혔고, 그의妃 소혜왕후는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1504년에 덕종의 서편에 묻히면서 경릉도 창릉과 마찬가지로 동원이강릉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소혜왕후의 능을 조성할 당시의 실록에, “옛 능과 거리가 1백 30 보(步)나 되고 매우 장지(葬地)의 법에 잘 맞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⁵ 능침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상좌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⁶ 경릉은 창릉과 매우 흡사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왕과 왕후 능의 조성연대가 47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능의 석물 양식이 다른 점 역시 창릉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경릉은 창릉의 왕과 왕후 능의 석물 조성연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덕종릉 석물과 같은 양식의 석물이 排設된 능이 예종릉이 될 것이고, 소혜왕후릉의 석물과 같은 양식으로 석물이 조성된 능이 안순왕후릉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릉과 창릉의 석물을 비교하면서도, 예종 창릉과는 불과 1-2년 시차를 두고 조성된 세조 광릉(1468)이나 세종 영릉(1499)의 석인상들과도 비교하여 창릉의 왕릉과 왕후릉의 위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석물 분석에 앞서, 경릉과 창릉의 조성 배경, 그리고 창릉의 능 위치에 대한 기록문헌, 특히 지금까지 조선 왕릉 연구의 중요한 史料로 활용되고 있는 『창릉지』의 간행시기도 아울러 검토할 것이다.

⁵ 『연산군일기』 卷52, 10년(1504) 4월 29일.

⁶ 숙종(1661-1720)의 明陵도 엄격하게 보면, ‘右左上下’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다.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은 雙陵 형식 이면서 ‘右左上下’의 원칙을 따랐으나 계비 인원왕후의 능은 숙종의 서편에 있으며 숙종과 같은 정자각을 사용하도록 조성되었다.

II. 창릉과 경릉의 조성

예종은 세조와 정희왕후의 차남으로, 이름은 황(暘)이다.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는 왕위에 오르기 전, 20세에 病死하여 서오릉에 묻혔고, 차남이 세조의 왕위를 이어 1468년에 예종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예종 역시 즉위 1년여 만에 20세의 나이로 병사하여 1470년에 서오릉에 묻혔다. 예종의 元妃 장순왕후(1445-1461)는 아기를 낳다가 17세에 사망하였고,⁷ 繼妃 안순왕후가 2남 2녀를 낳았으나 왕권은 예종의 아들이 아닌 의경세자의 차남이 계승했다. 그가 바로 성종(당시 13세)이다. 성종의 즉위로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송되고, 수빈(粹嬪)으로 있던 소혜왕후는 왕대비(인수대비)가 되었다. 덕종과 예종은 모두 20세에 병사했지만 그들의妃는 모두 장수하여 왕이 죽은 지 30-40년 후에 왕 옆에 묻혔다.

1. 창릉

1) 예종 창릉

예종 창릉의 조성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예종이 1469년 11월 28일에 세상을 뜨자 12월 6일에 능 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12월 12일에 현재의 자리로 확정했다. 1470년 2월 5일에 산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67일이 걸렸는데, 신숙주(申叔舟), 홍윤성(洪允成), 정현조(鄭顯祖), 서거정(徐居正), 김필(金堧)을 국장도감 제조로, 조석문(曹錫文), 한백륜(韓伯倫), 김국광(金國光), 이형(李衡), 한치형(韓致亨)을 산릉도감 제조로 삼았다. 한겨울에 왕릉을 조성하면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릉 부역에 7천 명 정도의 역군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⁸ 조선시대에 능 조성의 결정권자는 왕위 계승자였지만, 창릉의 경우는 성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자는 예종의 어머니 정희왕후였다. 정희왕후는 남편인 세조가 죽은 지 14개월 만에 아들 예종의 장사를 치러야했다. 실록에 “대행 대왕의 상장(喪葬)에 관한 모든 일은 세조 대왕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⁹ 예종 창릉은 세조

⁷ 예종의 元妃 章順王后 한씨(한명회의 셋째 딸)의 恭陵(1461)은 경기도 파주시 서삼릉 능역에 위치해 있다.

⁸ “영릉과 광릉에 부역하는 군사는 9천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의 산릉에는 다만 6천여 명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몫 시 추운날을 당하여 흙을 파서 우묵한 땅을 매워서 채우게 되니 공역이 갑절이나 많습니다. 청진대 역군(役軍) 1천 명을 더하게 하소서.” 『성종실록』 卷1, 즉위년(1469) 12월 25일.

⁹ 『성종실록』 卷1, 즉위년(1469) 11월 28일.

광릉의 예에 의거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실제 산릉 조성과정은 물론, 석물 역시 세조 광릉의 석물을 참조했을 것이다. 또한 바로 전 해에 친봉한 세종의 영릉 석물과도 유사성이 있을 것이다.

2) 안순왕후 창릉

안순왕후는 예종이 죽은 지 2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능 조성의 결정권자는 안순왕후의 질손(姪孫)인 연산군(1476-1506)이었다. 안순왕후의 喪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실록을 통해 볼 때 예종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던 듯하다. 우선 국장도감 제조는 성준(成俊) 한사람 뿐이었고, 산릉도감 제조 역시 유자광(柳子光), 강귀손(姜龜孫), 윤효손(尹孝孫) 세 사람에게 불과했다. 喪葬을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려는 의도가 실록의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안순왕후가 죽은 지 사흘 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喪葬의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喪制에 대한 논의를 보면, 안순왕후는 연산군의 친조모가 아닌데도 친조모와 같이 三年喪으로 해야 할지 期年喪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복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결국 喪禮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기년상으로 결정한다.¹¹ 또한 안순왕후의 장례기간을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5개월이 아니라 50일로 단축했는데, 날을 달로 바꾸는 易月制를 시행하여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당시 연산군이 喪葬을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저 길사(吉事)는 빨리 해야 한다. 경 등이 산(山)을 볼 적에도 이 뜻을 알아서 대군과 공주의 구기(拘忌)는 혐의삼지 말라. 또 금년은 심한 흉년이라, 공역하는 역군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¹²

¹⁰ 산릉 제조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산릉에 금정(今井)을 열 때는 광릉 만들 때의 예에 의거하여 종친, 정승, 예조 당상관, 도승지가 같이 가서 봉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종실록』 卷2, 1년(1470) 1월 9일.

¹¹ 특히 성준(成俊)이 건의하기를, “...내상(內喪)에 재취(齋衰) 3년이라 한 것은 친모후(親母后)를 지칭하여 한 말이옵니다. 대저 예는 인정을 인연한 것이오니 비록, 후(後)가 된 자는 자(子)된다고 하지만 그 인정이 어찌 소생 부모와 사이가 없겠사옵니까. 정이 이미 사이가 있다면 그 상제(喪制)도 역시 강쇄(降殺)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략) 정희왕후는 공로가 국가에 있으므로 그 상사는 대왕의 예(例)에 의한 것이 온 즉, 지금 그것을 준례로 삼아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여 안순왕후 喪制를 대왕의 예로 치른 정희왕후(광릉)보다 낮추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연산군일기』 卷31, 4년(1498) 12월 26일.

¹² 『연산군일기』 卷31, 4년(1498) 12월 29일.

喪葬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 홍문관에서 상소를 올리자, 연산군은 “대행왕비의 상(喪)에 대하여는 조정의 대신이 이미 참작하여 정한 것인데, 홍문관에서 유독 항쟁하는 소를 올려 그르다 하니, 이는 나의 신하가 아니고 대비(大妃)의 신하로다.”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¹³ 연산군은 흥년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 사건에 안순왕후가 개입한 사실에 대한 섭섭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종의 장례기간은 67일이었던 데 비해 안순왕후는 50일이었는데, 장례기간의 단축은 필연적으로 석물 제작기간의 단축을 초래했을 것이다.

2. 경릉

덕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덕종릉은 예종릉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하다. 참고로, 덕종의 무덤은 왕릉임에도 소혜왕후릉보다 석물의 종류가 적는데, 이는 세조가 국장도감에 다음과 같은 御札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저 이번 장례는 임금의 장례가 아닌데, 모든 일이 정도에 지나친 것 같다. 그 무덤 안의 모든 일은 마땅히 한껏 후하게 할 것이지만, 무덤 밖의 모든 일은 비록 나의 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박하게 해야 한다. 한갓 백성만 번거롭게 할 뿐이지 죽은 자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다. 의당 이러한 뜻을 알고서 태반을 감손하여 작고한 이의(李懿)의 묘석으로써 의상(儀象)을 만들되, 대략 경상(卿相)과 같게 하라.¹⁴

왕세자였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재상의 묘제에 맞추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덕종으로 추존된 후에도 석물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 역시 덕종의 어머니인 정희왕후가 공릉과 경릉에 석물을 추가 설치하지 말도록 예조에 명했기 때문이다.

공릉과 경릉은 지금 존호로 높였으니, 능위에는 마땅히 의물(儀物)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다만 생각하건데, 신도는 고요한 것을 숭상한다. 두 능은 안치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동요(動搖)시킬 수가 없으니, 그 의상(儀象)의 잡물은 가설하지 말도록 하라.¹⁵

¹³ 『연산군일기』 권31, 4년(1498) 12월 29일.

¹⁴ 『세조실록』 권9, 3년(1457) 9월 7일.

¹⁵ 『성종실록』 권2, 1년(1470) 1월 25일.

반면 소혜왕후가 세상을 떴을 때는 성종의 친모로서 왕실에서는 왕대비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여느 왕릉과 다름없이 조성되었다. 창릉의 陵主를 밝히는 데 있어서 소혜왕후릉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소혜왕후는 안순왕후와 동서시간이면서 두 능의 조성연대가 불과 5년 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혜왕후의 장례는 안순왕후의 예에 의거한다는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두 왕후릉의 상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¹⁶ 석물 분석에 앞서 소혜왕후의 능 조성 및 안순왕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혜왕후 경릉의 조성

소혜왕후가 1504년에 세상을 떴을 때 능 조성의 결정권자는 소혜왕후와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연산군이였다. 연산군이 소혜왕후의 장례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실록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¹⁷ 심지어 七齋 안에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를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¹⁸ “장삿날을 택하여 아뢰라. 또 서인이라도 상사를 속히 하려면 속히 하는 것인데, 더구나 온 나라가 하는데 무슨 속히 하지 못할 것이 있으랴?”하며 다시 독촉하기도 했다.¹⁹ 윤 4월 18일에는 “大行大妃의 發引을 이미 초 3일로 정하였으나 듣건대 功役이 거의 끝났다.”라는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능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거의 산릉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5월 1일에 발인하여 죽은 지 35일 만에 장사지냈다.²⁰ 창릉과 경릉의 산릉 조성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¹⁶ 전교하기를, “안순왕후의 喪制에 의하여 하라.”하였다. 『연산군일기』 卷52, 10년(1504) 4월 27일.

¹⁷ 예를 들어, “길러 주신 은혜도 중하지만, 大統이 더욱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운한 것이다. 62일 안에 산릉에 장사지낼 수 있겠는가?”하자, 김감이 아뢰기를, “천자는 7개월에 장사지내야 방궤(方軌)가 다 이르고 諸侯는 5개월에 장사지내야 同盟이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일이 다 되면 날수를 셀 것 없이 장사 모십니다.” 『연산군일기』 卷52, 10년(1504) 4월 28일.

¹⁸ “대행 대비의 七齋는 5월 17일인데, 그 전에 현궁에 모실 수 있느냐?”하니, 승지 朴諤이 아뢰기를, “안순왕후께서 승하하신 뒤 제 50일 만에 현궁에 모셨습니다. 산릉을 가려 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갖추었다가 장사지낸다면 17일 동안에 현궁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릉 역사가 더딜지 빠를지 알지 못하므로,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연산군일기』 卷52, 10년(1504) 4월 29일.

¹⁹ 『연산군일기』 卷52, 10년(1504) 4월 29일.

²⁰ 연산군의 의지대로 소혜왕후의 장례 기간을 단축시켰음은 폐비 윤씨에 이어 들어 온 성종의 계비이자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의 誌文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혜왕후의 상사 때에 燕山主가 喪制를 단축하여 시행하기로 의논하자, 왕후께서 예문에 의거하여 안 된다고 고집하고 또한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산주가 화를 몹시 내며 부인들은 三從한다는 말로 대답하므로 왕후께서 한탄하기를 ‘내가 소혜왕후에게 죄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탄식한 기록이 있다. 『중종실록』 卷69, 25년(1530) 9월 7일.

구분	사망일	장례일	장례기간
예종 창릉	1469년(성종 즉위년) 11월 28일	1470년 2월 5일	67일
안순왕후 창릉	1498년(연산군 4년) 12월 23일	1499년 2월 14일	50일
소혜왕후 경릉	1504년(연산군 10년) 4월 27일	1504년 5월 3일	35일(윤4월 포함)

연산군은 윤씨 폐비 사건에 소혜왕후가 깊이 관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만 갖춰서 장례를 치룬 듯하다. 소혜왕후의 장례기간 동안에 폐비사건과 연관된 윤필상, 이극균, 이세좌 등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심지어 발인하는 날조차도 폐비 사건 관련 인물들이 벌을 받았다. 소혜왕후에 대한 왕의 감정이 소혜왕후릉의 석물을 담당했던 신하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는 석물의 조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안순왕후와 소혜왕후의 관계

안순왕후와 소혜왕후의 능은 이들의 남편이었던 예종이나 덕종의 능과의 유사성보다는 오히려 두 왕후릉 간의 유사성이 클 것이다. 조성연대가 비슷하고 조성의 책임자가 같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두 왕후가 동서지간으로 나란히 왕실에서 왕대비의 대접을 받았으나 왕실 안에서 位次 문제로 미묘하게 감정이 얽혀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안순왕후는 소혜왕후의 손아래 동서였지만 남편인 예종이 세조에 이어 왕위에 올랐고 종묘에 먼저 祔廟되었던 반면, 덕종은 차남이 예종에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왕으로 추존이 되었기 때문에 宗統으로는 소혜왕후보다 안순왕후의 位次가 높았다. 이런 사정으로 생전에 안순왕후와 소혜왕후의 관계는 평탄치 않았고, 位次 문제가 조정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능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그 규모나 형식을 가급적 맞추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왕후의 능은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I. 창릉의 왕과 왕후의 능 위치에 대한 문헌기록

조선시대 왕릉의 위치를 밝혀 줄 자료로는 碑文, 誌文, 謄錄, 儀軌, 陵誌, 승정원일기, 실록, 개인문집 등이 있다. 그러나 창릉 조성 관련 문헌들은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창릉 비문(碑文)

창릉에서 왕과 왕후의 능 위치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는 비문이다. 비석의 앞면에 “睿宗大王 昌陵/安順王后祔左岡,” 뒷면에 “安順王后韓氏 大王陵左岡”이라고 새겨져 있어, 서쪽이 예종의 능이고 동쪽이 안순왕후의 능임을 알 수 있다.²¹ 그러나 이 비석은 창릉 조성 당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릉에 신도비를 세웠으나 ‘임금의 공업(功業)은 국사(國史)에 기록하니 까 비석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문종 현릉 이후부터는 신도비를 건립하지 않았다. 현재 창릉의 비석은 임진왜란 이후인 1754년에 영조가 세우도록 지시하여 영조 30년(1755)에 건립된 것이다.²² 따라서 창릉 비문은 능 조성 당시의 정보가 될 수 없다. 창릉 비문 내용은 숙종 때 간행된 『璿源系譜』를 근거로 삼은 것인데, 그래서인지 실록이나 『선원계보』와 마찬가지로 비문에도 안순왕후의 生年은 없이 태어난 날짜만 기록되어 있다.

2. 昌陵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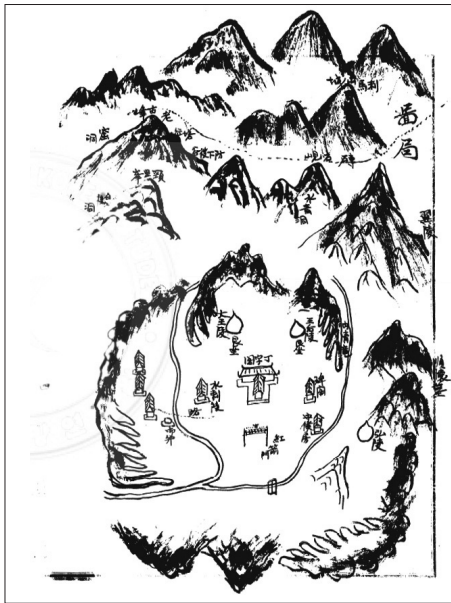
창릉에 대한 중요한 기록물로 『창릉지』가 있다. 현재 창릉의 위치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비문과 함께 『창릉지』의 기록이다. 『창릉지(K2-4486)』의 陵殿, 山陵條에는 다음과 같이 능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21 睿宗襄悼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 皇明景泰元年庚午正月朔日誕生初封海陽大君天順元年丁丑册封 王世子成化四年戊子九月七日受禪己丑十一月二十八日昇遐 庚寅二月五日葬于高陽 敬陵北岡艮坐之原在位一年壽二十 皇朝賜諡襄悼 繼妃仁惠昭徽齊淑安順王后韓氏 三月十二日誕生初封昭訓成化四年戊子册封王妃弘治十一年戊午十二月二十四日昇遐己未二月十四日葬于 大王陵左岡艮坐之 原(王后忌辰十二月二十三日誤書以二十四日故璿源世系書以二十三日)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 日立 (인용자 강조)

22 自三角山落爲利馬山城, 自利馬山城西低爲磚石峴, 自磚石峴陡起爲巒峯. 北轉而又起峯名爲小巒峯, 而爲本陵主峯. 又西轉而分爲雙岡, 皆艮入而爲艮坐坤向, 西爲大王陵, 東爲安順王后陵. 『영조실록』 卷82, 30년(1754) 12월 12일.

삼각산에서 산줄기 한 자락이 떨어져 이마산성이 되었다. 이마산성에서 서쪽으로 나직이 이어져 있는 것이 전석현이요, 전석현으로부터 산세가 가파르게 일어나 앵봉이 된다. 앵봉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봉우리를 일으키니 이름하여 '소앵봉'이라고 하는데, 이 능(창릉)의 주봉이 된다. 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두 개의 봉우리로 나뉘는데, 모두 간방(良方)을 들어 간좌곤향(良坐坤向)이니, 서쪽은 예종대왕의 능이요 동쪽은 안순왕후의 능이다.²³

『창릉지』는 현재 장서각에 4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4권은 『창릉지(K2-4486)』, 『창릉지(K2-4487)』, 『창릉지(K2-4488)』, 『창릉지(K2-4489)』로 구분되어 있다. 『창릉지(K2-4489)』 해제에는 “『昌陵誌(K2-4487)』는 具梯元이 1795년(正祖 19)경에 補編한 것으로서 본래 1765년(乙酉, 英祖 41)에 李德容이 舊謄錄을 參考로 再編한 것을 底本으로 하여 다시 追錄을 加하고 凡例와 目錄을 編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릉지(K2-4488)』는 『창릉지(K2-4487)』의 下篇이고, 『창릉지(K2-4489)』는 正祖 이후(1800년 이후)에 『창릉지(K2-4487)』를 台本으로 編成하였다. 그 중에서 『창릉



도 2 『창릉지(K2-4486)』, 圖局, 장서각

지(K2-4486)』는 서지 저자 항목에 “成宗(朝鮮王, 1450-1494)命編, 寫本(1913頃寫)”이라고 표기되었기 때문에, 창릉 조성시기에 편찬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창릉지(K2-4486)』 해제에서 “1911년 이후에 이왕직에서 陵園墓의 일괄조사 때에 만든 능지이고 역시 K2-4487을 底本으로 필사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창릉지』 중에서 K2-4486과 K2-4487은 세부 목록이나 체제 그리고 표석의 크기를 기록하는 방식은 물론 수치까지 똑같다. 안순왕후의 출생에 대한 기록에서 연도 없이 3월 12일이라고 날짜만 적어 놓은 것 역시 일치한다.²⁴ 창릉의 관원 명부인 선생안(先生案)도 만력 무인년(선조 11년, 1578)부터 시작되어 있

²³ 최영성, 『西五陵 造景關聯資料抄譯』, 『온지논총』 제10집(2004. 6), p. 259에서 재인용.

²⁴ 안순왕후의 생일에 관한 기록이 『예종실록』과 『성종실록』에 16번 정도 나오는데, 어디에도 나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창릉에 관한 기록은 모두 실록에 근거를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으며, 그 이전의 것은 전해오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다.²⁵ 그리고 능지에 왕의 誌文은 실려 있으나 안순왕후의 지문에 관해서는 전해지지 않으며, 애책문도 동일하다고 적혀 있다.²⁶ 또한 창릉의 위치를 그림으로 설명한 圖局에 인경왕후 翼陵(1680)과 정성왕후 弘陵(1757)처럼 후대에 조성된 능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창릉지』는 영조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 2). 요컨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창릉지』 4편은 모두 1765년 이후에 재편되고 필사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史實을 기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능의 위치를 규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3.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는 대개 왕과 왕후 능의 위치를 명시한 묘지문이 실리지만, 『연산군일기』에는 안순왕후의 지문이나 구체적인 위치에 관한 기록이 없다. 대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선조실록』에는 창릉에서 서쪽이 왕의 능이 아니라 왕후의 능일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어 흥미롭다.

의정부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관상감 제조 홍진(洪進), 예조 판서 황진(黃璣), 선공감 제조 홍여순(洪汝諱)이 아뢰기를, “신들이 창릉에 달려가 사초가 퇴락된 곳을 봉심하니, (중략) 왕후의 능이 서쪽 언덕 위에 있어서 서쪽을 상(上)으로 삼는 제도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건대 양릉(兩陵)의 위에 모두 사대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나머지 의물(儀物)과 제구(諸具)도 가감이 없이 똑같아서 밖에서 살펴보면 대왕과 왕후의 구별이 없습니다. 본능에 소속된 연노(年老)하고 일을 잘 아는 하인들의 말에 의하면 모두들 서릉(西陵)이 왕후의 원릉(園陵)이라고 하고, 신들 가운데도 누차 제관(祭官)에 차임되어 왕래한 사람이 있기도 한데 그들도 서릉이 왕후의 능위(陵位)라는 것을 익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릉 가운데는 동서의 위치(位次)를 바꾼 곳이 많이 있어 이 능만 그런 것은 아니니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을 겪은 이후 유망(遺忘)된 일이 많고 또 증거 할 만한 등록도 없으니, 능위의 중대한 일을 익히 강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선조(先朝)의 〈실록〉을 상고해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²⁷

예조가 아뢰기를, “창릉의 사초가 무너져 내린 곳을 봉심한 대신 이하의 계사(啓辭)에 대해 윤택하다는 것으로 전교하였습니다. 능상의 사초를 개수하는 일은 반드시 장마가 견힌 뒤에

²⁵ 『창릉지(K2-4486)』 上篇, 任官, ‘沿革’

²⁶ 『창릉지(K2-4486)』 上篇, 쪽 표시 없음.

²⁷ 『선조실록』 卷200, 39년(1606) 6월 17일.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본능(本陵)은 침원(寢園)이 동쪽에 있고 왕후의 능이 서쪽에 있는 바, 서쪽을 상위로 하는 예제에 어긋나니 의혹스러움을 면할 수가 없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평상시 원릉(園陵)의 자리를 정할 적에 모지(某地)·모구(某丘)·모산(某山)·모수(某水)·좌모방(坐某方)·향모방(向某方) 등의 항목을 모두 <실록>에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사에 ‘우리나라의 산릉은 동서의 위치가 바뀐 곳이 또한 많다.’고 했기 때문에 본조에서 이미 각릉(各陵)에 이문하여 널리 방문(訪問)하여 사실을 알아서 첩보(牒報)하게 하였으니, 우선 각 능의 회보를 기다리게 하소서. 그런 다음 창릉과 동서의 위치가 같은 경우를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에서 상고해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⁸

그러나 아쉽게도, 상고해낸 결과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창릉에 대한 내용을 謄錄이나 『창릉지』가 아닌 실록에서 찾으려했다는 사실은 이미 이러한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당시 창릉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동쪽이 예종릉이라고 증언했다는 사실이다.

4. 기타 문헌

조선시대 왕과 왕비에 관한 공식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列聖誌狀通紀』는 조선 태조의 4대 선조인 穆祖, 翼祖, 度祖, 桓祖로부터 英祖의 元妃인 貞聖王后에 이르기까지 각 대의 行狀, 誌文, 神道碑銘, 表石陰記, 竹冊文, 哀冊文, 諡冊文 등을 엮은 책이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도 『창릉지』와 마찬가지로 안순왕후의 지문이나 애책문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인 1688년(숙종 14)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다. 李肯翊(1736-1806)이 지은 『연려실기술』 제6권 ‘예종조고사본말’에도 창릉 비문과 동일하게 안순왕후의 능이 “예종대왕 능의 왼쪽 산 艮坐에 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역시 18세기 후반에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승정원일기』도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소실되었고, 『국조보감』,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에도 창릉에 대한 기록이 없다. 17세기 말에 쓰인 『震史記略』 제1권 『예종조』에서는 왕후릉의 위치를 “在大王陵 左置戍坐”라고 하여 ‘艮坐’를 ‘戍坐’로 잘못 표기하기조차 했다.

개인문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成俔(1439-1504)의 『虛白堂集』과 金克成(1474-1540)의 『憂亭集』에는 안순왕후의 挽章 정도만 기록되어 있고, 洪貴達(1438-1504)의 『虛白亭集』 중 ‘인혜왕비 만사(挽詞)’에는 ‘葬附舊陵岡’이라는 정도의 기록만 있다. 공교롭게도 안순왕후 창릉은 무오사화

²⁸ 『신조실록』 卷200, 39년(1606) 6월 19일.

(1498), 소혜왕후 경릉은 갑자사화(1504) 연간에 조성되었던 탓인지, 문집의 내용에서도 역사적인 부분이 부실하다. 그리고 선조 때 능의 위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우의정 沈喜壽, 관상감 제조 洪進, 예조 판서 黃璣, 선공감 제조 洪汝諄 등의 개인 문집 자료에서도 창릉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렇듯 창릉의 조성 당시의 기록 문헌은 찾기 어렵고, 현재 예종과 안순왕후 능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 창릉의 비문과 『창릉지』의 기록은 능이 조성된 지 250여년이 지난 18세기 중엽의 문헌이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연대가 이른 임진왜란 직후의 실록에서 동쪽의 능이 왕의 능일 가능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능에 排設되어 있는 석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V. 석물 양식을 통한 능의 위치

조선시대 왕릉은 기본적으로 선대의 능을 참조하여 조성했기 때문에 석물의 양식이 갑작스럽게 변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각 능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기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창릉의 경우 예종릉과 안순왕후릉의 석물은 같은 능역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지만, 예종릉 석물은 실질적으로 조성시기가 비슷한 덕종 경릉이나 세조 광릉의 석물과 더 유사성이 있을 것이고, 안순왕후릉 석물은 소혜왕후릉 석물과 더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왕릉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조성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창릉 석물의 양식 분석

창릉은 왕과 왕후의 능이 같은 구조이며,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경릉의 석물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다른 왕릉의 석물들과 비교하여 그 제작 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1) 문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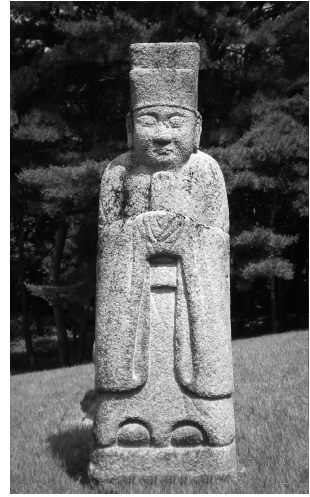
창릉 중에서 예종이 문헌 것으로 알려진 서쪽 능의 문석인은 우람한 편이고 괴체감이 있으



도 3 예종 창릉, 문석인, 1470년



도 4 안순왕후 창릉, 문석인, 1499년



도 5 덕종 경릉, 문석인, 1457년



도 6 소혜왕후 경릉, 문석인, 1504년

며, 목을 어깨에 깊게 파묻고 홀을 턱 밑에 바로 붙이고 있는 모습이며 주먹코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도 3). 반면 동쪽 안순왕후릉 문석인은 서쪽 능의 문석인에 비해 덜 둔중하고 얼굴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니며 홀을 턱에서 떼고 있다(도 4). 조선시대 문석인의 양식은 『국조오례의』 편찬 즈음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초기에는 건원릉이나 광릉의 문석인처럼 얼굴이 다른 시기 석인상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며 홀을 턱에서 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안순왕후릉으로 알려져 있는 문석인에서 나타나고 있어 조선시대 문석인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는 선릉의 문석인처럼 목을 움츠리고 홀을 턱에 바짝 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예종릉의 문석인에서 보인다. 그 외에도 정면의 袍의 늘어진 소매가 초기에는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후기로 갈수록 옆

으로 벌어져 ‘八’字 형태를 띠게 되는데, 왕후릉으로 알려진 문석인의 소매가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저고리 소매 표현에서도 1500년대 문석인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고리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를 넘어서 경릉과 창릉의 왕과 왕후릉 문석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면, 창릉 안순왕후의 문석인이 경릉 덕종의 문석인(도 5)과 같은 유형이고, 창릉 예종의 문석인이 경릉

소혜왕후의 문석인(도 6)과 같은 유형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석인의 유형만으로도 창릉의 왕과 왕후의 능 조성시기의 先後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동쪽에 있는 능이 먼저 조성된 예종릉일 가능성이 크다.

2) 무석인

예종릉 무석인(도 7)과 안순왕후릉 무석인(도 8)은 기본적으로 같은 양식이다. 그러나 문석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아 왕후릉에 비해 왕릉의 무석인이 크고 괴체감이 있으며 오히려 안순왕후릉의 무석인은 세조 광릉(1468)의 무석인(도 9)과 같은 유형이다. 무석인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발목의 脛甲 노출 여부인데, 서쪽 예종릉의 무석인은 경갑이 감추어져 있으나 동쪽 왕후릉의 무석인은 노출되어 있다. 예종릉보다 14개월 먼저 조성된 세조 광릉의 무석인을 보면, 경갑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창릉에서는 왕후릉에서 경갑이 노출되어 있다. 한편 소혜왕후 경릉의 무석인(도 10)은



도 7 예종 창릉, 무석인, 1470년



도 8 안순왕후 창릉, 무석인, 14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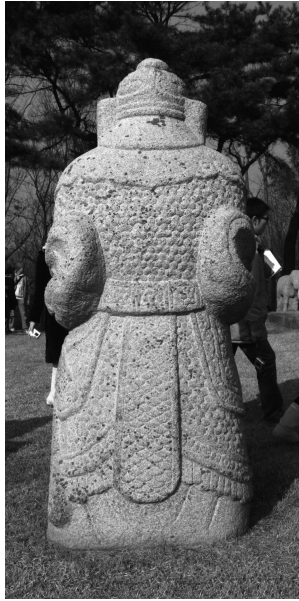
도 9 세조 광릉, 무석인, 1468년



도 10 소혜왕후 경릉, 무석인, 1504년



도 11 세종 영릉, 무석인 뒷면,
1469년



도 12 예종 창릉, 무석인 뒷면,
1470년



도 13 안순왕후 창릉,
무석인 뒷면, 1499년

예종 창릉의 무석인처럼 발목이 감춰져 있어 흥미롭다. 그 이외에도 예종릉의 무석인과 소혜왕후릉의 무석인 간에 여러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선 투구의 묘사에서도 예종릉과 소혜왕후릉의 무석인 투구는 차양이 있는 유형이고, 1469년에 조성된 세종 영릉 무석인과 안순왕후릉의 무석인은 원주(圓靑)형이며, 뒷모습에서 목가리개, 요대, 미갑의 표현에서도 역시 세종 영릉의 무석인(도 11)은 서쪽의 예종릉 무석인(도 12)보다는 동쪽의 안순왕후릉 무석인(도 13)과 닮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왕릉 무석인의 귀의 표현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다른데, 조선 초기에는 투구의 귀부분에 깃털 장식이 있어 귀가 보이지 않지만, 선릉의 무석인에서부터는 깃털 앞으로 귀가 노출되었다가 점차 깃털 장식 없이 귀만 조각된다. 창릉에서 왕릉 무석인의 귀는 깃털 장식이 뒤로 젖혀지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반면, 왕후릉 무석인은 깃털 장식만 표현되어 있어 왕릉에 세워져 있는 무석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성된 석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쪽에 있는 능의 무석인이 주먹코로 표현되었고 칼과 칼집의 폭이 동쪽에 있는 능의 칼과 칼집보다 넓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 역시 조선 초기가 아닌 중기 이후 무석인 표현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무석인의 특징들을 종합해볼 때, 문석인과 마찬가지로 왕후릉으로 알려진 동쪽 능의 무석인이 더 이른 시기에 조성된 석물로 판단되며, 이는 동쪽 능이 예종릉임을 의미한다.

3) 석수

조선 왕릉에서 석수는 간략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우선 석마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공민왕릉에서처럼 조성되지 않았지만, 세종대에 건원릉에서부터 石馬를 설치했다.²⁹⁾ 조선 왕릉의 석마를 관찰해 보면, 머리와 몸의 비례가 시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세종대에 조성된 건원릉과 한릉의 석마는 몸과 머리의 비례가 3.2대 1정도인데, 16세기 초반의 현덕왕후 현릉과 장경왕후 희릉 석마는 비례가 2.5대 1정도로 변화했다. 창릉 예종릉의 석마는 2.7대 1정도이고, 왕후릉은 3대 1정도이기 때문에 석마의 조형적 특징 역시 왕후릉의 석마가 조선 초기 양식에 가깝다.

석양의 경우, 창릉의 왕과 왕후 능의 석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머리를 든 각도에서 차이가 난다. 조선 왕릉에서 석양 역시 시대에 따라 서 있는 모습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초기는 고개를 들고 있다가 중기를 넘어서면서 머리를 든 각도가 몸과 수평을 이루게 된다. 창릉의 경우 왕릉보다는 왕후릉의 석양이 고개를 더 들고 있어, 보다 이른 시기의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예종릉 석양의 모습이 소혜왕후릉에 조성되어 있는 석양과 같은 유형이다. 이렇듯 석수의 조형적 특징 역시 동쪽 능의 석물이 보다 이른 시기 석물의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서쪽 능의 석물 유형은 소혜왕후릉 석물과 같은 유형으로,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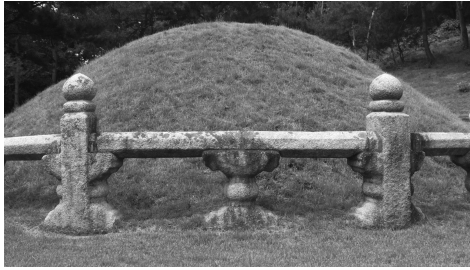
4) 난간석

창릉에서 동쪽과 서쪽의 능은 난간석의 표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난간 석주의 상단부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쪽 안순왕후릉의 난간석은 조선시대 여느 왕릉의 난간 주두 장식과 같은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나(도 14), 서쪽 능의 난간석은 石柱의 圓首 아래에 仰覆蓮 장식이 없는 독특한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도 15). 조선 왕



도 14 안순왕후 창릉, 난간석, 1499년

²⁹⁾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1호(2009, 봄), p. 170 참조.



도 15 예종 창릉, 난간석, 1470년



도 16 소혜왕후 경릉, 난간석, 1504년

릉 50기 중에 난간석이 조성된 경우는 41기인데, 이와 같이 원수 아래에 장식이 없는 난간 석주가 조성된 경우는 단 2기뿐이다. 흥미롭게도 나머지 하나는 바로 1504년에 조성된 소혜왕후 경릉의 난간 석주다(도 16). 이러한 난간석의 조형적 특징 역시 현재 예종릉으로 알려진 서쪽 능이 소혜왕후릉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5) 장명등

예종릉과 안순왕후릉의 장명등은 기본적으로 같은 8각 장명등이다. 그러나 예종릉의 장명등은 4각형 火窓 안의 네 구석에 삼각형 정지 턱을 만들었으나(도 17), 안순왕후릉 장명등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정지 턱은 바람막이 창틀이 안으로 밀려들 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장명등에 정지



도 17 예종 창릉, 장명등의 화창, 1470년

턱이 표현된 경우는 성종 선릉(1495)에서 처음 나타나고, 대체로 16세기가 되어야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장명등을 통해서도 예종릉으로 알려진 서쪽 능이 나중에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장명등에 불을 켜올 가능성이 있지만, 차츰 불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³⁰ 후대에 장명등에 불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등의 화창에서 바람막이 창을 덧대는 형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6) 계체석 섬돌

창릉의 왕릉과 왕후릉이 쌍둥이처럼 조성되었지만 석물의 종류에서는 서쪽 왕릉에는 없으나 동쪽 안순왕후릉에만 조성되어 있는 석물이 있다. 계체석(階砌石) 각 단의 중앙부분 아래에 놓인 섬돌이 그것인데(도 18), 우리나라 왕릉 중에서 계체석 부분에 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단의 높이가 높은 고려 왕릉에서 찾아볼 수 있다.³¹ 조선시대 왕릉으로는 북한에 있는 定宗 厚陵(1412)의 조성에 대한 기록에서, “남, 동, 서에는 각각 작은 돌층계(石梯)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여겨진다.³² 현재 조선 왕릉에서 계체석 사이에 섬돌이 놓여 있는 경우는 건원릉, 현릉, 현릉, 영릉, 순릉 같은 초기 왕릉이고, 정희왕후 光陵(1483)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안순왕후릉에는 계체석 사이에 섬돌이 놓여 있는데, 이는 정희왕후 광릉 이전에 조성된 능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도 18 안순왕후 창릉, 섬돌(화살표), 1499년

섬돌 이외에도 조선 왕릉 석물 중에서 초기 왕릉에는 설치되었다가 점차 사라진 석물로는 拜石이 있다. 배석은 불교에서 도입된 석물로서 正中石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³³, 배석에 대한 문헌기록은 현릉까지 나타나며 실제로 현릉의 능상에 실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세종 ‘구 영릉’의 조성 기록에는 배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석이 오랫동안 조성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창릉의 경우 배석의 유무로 능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는 없다. 대신 섬돌이 사라지는 시점은 『국조오례의』가 편찬되어 조선 왕릉 제도가 확립된 이후이다. 따라서 창릉에서 섬돌이 동쪽의 능에만 보이고 서쪽의 능에는 없다는 사실은 동쪽 능이 먼저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예종의 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30 獻陵의 대상(大祥) 뒤에, 장명등에 불 켜는 일과 조석으로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영의정 유정현(柳廷顯), 좌의정 이원(李原) 등이 의논하기를, “장명등에 불 켜는 일과 분향하는 일은 옛 제도가 아니니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종실록』 卷24, 6년(1424) 5월 7일.

31 고려 왕릉에 대한 언급은 장경희, 『고려왕릉』(예맥, 2008) 참조.

32 『세종실록』 卷9, 2년(1420) 1월 3일. 또한 定宗의 厚陵에 관한 최근 학술조사보고서에 실린 사진을 통해 섬돌로 여겨지는 석물이 일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 I』(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 289.

33 장영훈, 『왕릉이야말로 조선의 산 역사다』(도서출판 담디, 2005), p. 88.

2. 예종 창릉, 안순왕후 창릉, 그리고 소혜왕후 경릉 비교

현재 알려져 있는 대로, 창릉 중에서 서쪽이 예종릉이라면 석물의 양식에서뿐 아니라 세부 표현과 정성을 드린 정도에서도 덕종 경릉이나 세조 광릉의 석물과 유사성이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종릉 석물은 오히려 소혜왕후릉의 석물과 마찬가지로 세부 묘사가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 서둘러 제작한 듯한 인상을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산군이 안순왕후릉과 소혜왕후릉을 조성할 때 장례기간을 단축시켰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 예종릉 석물이 안순왕후릉 석물에 비해 거칠고 대략적으로 표현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예종릉의 난간 석주가 소혜왕후릉 난간 석주와 똑같이 염의 장식이 생략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 석물의 세부를 생략하거나 간략화 현상은 鼓石의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안순왕후릉의 고석에는 魚頭鬼面이 조각되어 있지만 예종릉 고석에서는 어두귀면 대신에 간단한 고리 장식으로 대체되었으며(도 19), 소혜왕후릉 고석에는 아예 아무런 장식도 없다(도 20). 이와 같이 현재 안순왕후릉 석물보다 예종릉의 석물이 소혜왕후릉 석물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것은 예종릉으로 알려진 서쪽 능이 소혜왕후릉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안순왕후릉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순왕후와 소혜왕후의 능 석물이 닮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능 조성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왕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능 조성에서 차등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두 왕후는 일찍이 홀로 되었고 또한 나란히 왕대비 역할을 했는데, 서로의 位次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실록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³⁴ 이러한 사실은 능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때문에 석물의 종류는 물론 양식에서도 가능한 비슷하게 조



도 19 예종 창릉, 고석, 1470년



도 20 소혜왕후 경릉, 고석, 1504년

성하려 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소혜왕후릉을 조성하면서 30여 년 전에 조성된 시동생의 능인 예종릉보다는, 불과 5년 전에 조성된 안순왕후릉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성연대가 5년 정도 차이라면, 같은 장인들이 석물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조각양식의 유사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석물의 양식적인 특징 이외에도, 능이 위치한 지형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왕과 왕후의 능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종릉을 조성할 당시에 정인지가 “이 산은 靑龍이 높고 白虎가 낮으니 그다지 사용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다만 서울에 가까운 점만 취(取)할 뿐입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³⁵ 이는 현재 왕후릉으로 알려져 있는 동쪽 능의 지세와 일치한다. 백호에 해당되는 산줄기는 현재 예종릉인 서쪽 언덕이 되며 실제로 산줄기가 낮은 편이다(도 1 참조). 그러나 현재 서쪽의 예종릉에서는 백호를 제대로 지정하기 어렵다. 또 실록에 의하면, 1470년 2월 5일에 예종의 산릉을 마무리하였는데, 그 달 22일에는 신숙주 등이 명을 받들어 풍수학(風水學)과 함께 창릉의 補土할 곳을 살피고 돌아와서, “주산에 보토하는 것은 무익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예종릉은 보토를 고려할 만큼 主山이 약한 형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현재 서쪽 능은 주산에서 급경사로 내려오는 곳에 능침이 조성되어 있어 보토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형인데 반해, 동쪽 능은 주산으로 이어진 맥이 약하고 이지러져 있으며, 현재도 동쪽 능 뒷면의 잉(孕)부분에서 보토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역사적 기록 및 석물과 능 주변의 지형을 통해 창릉의 왕과 왕후 능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른 산줄기에 조성된 창릉은 경릉과 마찬가지로 이상좌하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능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동쪽에 조성된 능이 예종릉이고 서쪽에 조성된 능이 안순왕후릉일 것으로 여겨진다.

³⁴ 『성종실록』 1년 3월 12일; 3년 2월 20일; 6년 5월 15일; 7년 1월 6일 등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³⁵ 『성종실록』 卷3, 1년(1469) 12월 12일.

³⁶ “지금 말하기를 창릉(昌陵)의 주산(主山)의 보토(補土)는 인력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그렇다면 무릇 능실의 보토는 모두 불가한 것인가?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낮고 이지러진 곳 같은 것은 보토할 만하지만, 주산에 보토하는 것은 무익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卷3, 1년(1470) 2월 22일.

조선시대 왕릉을 조성할 때는 대부분 이상좌하의 원칙을 따랐지만, 덕종 경릉이나 숙종 명릉에서처럼 ‘서로 다른 언덕’에 조성할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능이 모두 서오릉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경릉과 창릉은 세조의 두 아들의 능이며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고, 안순왕후릉을 예종릉의 서편에 조성했기 때문에 소혜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에 이상좌하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250년이 지난 후에 숙종의 明陵을 조성할 때에도 왕과 제1계비는 雙陵으로 이상좌하의 원칙에 따라 조성했지만, 제2계비의 능은 다른 산줄기에 능을 조성하였기 때문인지 숙종릉의 서편에 조성했다. 따라서 동원이강릉과 같이 다른 산줄기에 능을 각각 조성할 때는 이상좌하의 원칙을 무리하게 지키기보다는 자연 지형에 따라 능선을 이용하여 능침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창릉 조성 당시의 기록문헌이 발견되거나 적어도 봉분 앞에 묻혔을 지석의 발굴과 같은 실증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왕릉 앞에 건립되었을 정자각의 터나 神路를 발굴한다면 의문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정자각이 왕릉과 왕후릉의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원래는 왕릉 앞에 건립했다가 왕후릉을 조성하면서 가운데로 옮겼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실증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본고에서는 석물의 양식분석에 의거한 미술사방법론으로 문헌사의 오류 여부를 검토해보고, 아울러 조선 왕릉에서 석물의 미술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제어(keyword) _ 왕릉(royal tomb), 석물(tomb sculpture), 창릉(Changneung), 경릉(Gyeongneung), 예종(King Yejong), 덕종(King Deokjong), 서오릉(Seoreung), 안순왕후(Queen Ansun), 소혜왕후(Queen Sohye), 창릉지(Changneungji), 문석인(Munseogin), 무석인(Museogin)

³⁷ 『연산군일기』卷32, 5년(1499) 1월 22일.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명릉양릉개수도감의례』, 1744(영조 20년).

『濬源譜略』, 1861(숙종 7년).

『列聖誌狀通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王族譜』, 이왕직실록편찬회, 1910.

『震史記略』, 17세기 후반.

『昌陵誌』, K2-4486, K2-4487, K2-4488, K2-4489.

『조선유적유물도감』,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대한민국, 2007.

ICOMOS,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 학술 연구』, 문화재청, 2007.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1호(2009, 봄), pp. 155-190.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명청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제262호(2009, 6), pp. 69-98.

최영성, 『西五陵 造景關聯資料抄譯』, 『온지논총』 제10집, 2004, pp. 255-278.

양관, 장인성·임대희 역, 『중국역대 능침제도』, 서경, 2005.

장영훈, 『왕릉이야말로 조선의 산 역사다』, 도서출판 담디, 2005.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08.

국문초록

西五陵에 위치한 昌陵은 조선 8대왕 睿宗(1450-1469)과 계비 安順王后(?-1498)의 능으로, 소위 '同原異岡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릉에서 합장릉, 쌍릉, 동원이강릉 형식으로 조성될 경우에 '右上左下'의 원칙, 즉 '西上東下' 원칙에 따라 서편에 왕의 능을, 동편에 왕후의 능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조선시대 내내 지켜졌고, 현재 서오릉에 위치한 德宗(1438-1457)과 昭惠王后(1437-1504)의 敬陵만이 예외적으로 동쪽에 왕의 능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경릉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예종의 창릉 역시 이러한 규범을 따르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 근거로 석물의 조형적 특징, 문헌기록, 능 주변의 지형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석물조각이다. 조선 왕릉 석물은 조성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능 조성자의 의지에 따라 석물의 크기, 양식, 화강암의 품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능에 조성되어 있는 석물은 서로 다르다. 게다가 우리나라 석물은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무덤을 신성시하는 전통이 있어 능의 조성 및 改修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각 능의 역사 연구에 있어 기초 史料가 될 수 있다. 창릉과 같이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왕릉의 경우, 기록문헌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석물은 능 조성의 先後나 陵主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창릉의 왕과 왕후 능의 조성 시기는 29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석물조각 양식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석물 양식의 차이를 근거로 조성시기의 先後를 밝혔는데, 덕종과 소혜왕후의 경릉 석물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덕종과 예종은 세조의 두 아들이었으며 조성 시기도 비슷할 뿐 아니라, 경릉의 왕과 왕후 능의 조성연대가 47년이나 차이이기 때문이다. 또 예종 창릉과는 불과 1-2년 시차를 두고 조성된 세조 광릉과 세종 영릉의 석인상과도 비교했다. 요컨대, 예종 창릉의 석물은 덕종 경릉, 세조 광릉, 세종 영릉의 석물과 같은 유형이어야 하며, 안순왕후 창릉과 소혜왕후 경릉의 석물이 같은 유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무석인, 석수, 장명등, 개체석의 섬돌, 고석 등 모든 석물을 분석할 결과를 보면, 예종릉으로 알려진 서쪽에 위치한 능의 석물이 소혜왕후의 석물과 같은 유형이고 조선 왕릉 석물의 양식 흐름에서 1500년 즈음에 나타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서쪽에 위치한 능이 안순왕후의 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창릉의 왕과 왕후의 능 위치의 근거는 비문과 『창릉지』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능이 조성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능이 조성된 지 250년이 지난 18세기 중엽의 기록으로

서 능의 위치를 규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 대신 『선조실록』에서 임진왜란 직후에는 창릉의 왕과 왕후의 능의 위치를 지금과는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점을 논의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창릉의 왕과 왕후의 능의 위치가 현재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를 가능성과 함께, 조선 초기에는 '西上 東下' 원칙의 적용에 유연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창릉 조성 당시의 기록문헌이 발견되거나 봉분 앞에 묻혔을 지식, 혹은 현재 위치로 옮기기 전에 원래 왕릉 앞에 건립되었던 정자각의 터나 神路의 발굴과 같은 실증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본고에서는 석물의 양식분석에 의거한 미술사 방법론으로 문헌사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조선 왕릉에서 석물의 미술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Abstract

Reassessment of the Arrangement of the Royal Tombs at Changneung

Kim Yisoon*

Changneung, located within Seoreung, the graveyard park with five royal tombs, belongs to King Yejong (1450-1469), the 8th ruler of Joseon and his second wife, Queen Ansun (?-1498). The remains of the royal couple were buried inside separate mounds, in the so-called style of *dongwon igangneung*. In Joseon, royal spouses were buried, after their death, either in a couple tomb (*hapjangneung*) or in two separate tombs. The two tombs may lie side-by-side (*ssangneung*) or be placed in a position known as *dongwon igangneung*. In the latter case, the king's tomb is in the west side. Currently, the only royal graveyard in *dongwon igangneung* style that is known to be not in conformity with this rule are Gyeongneung, belonging to King Deokjong (1438-1457) and Queen Sohye (1437-1504), where the king's tomb is placed east of the queen's tomb which faces it from the west. Changneung, however, is another example in which the positions of the king's and queen's tombs are inverted. This paper explores possible reasons why the tombs of this royal couple were arranged opposite to their customary positions by examining tomb sculptures, surviving records and the landscape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area. Special attention

* Associate Professor, Hongik University

was paid to stone monuments placed around the two tombs. Stone monuments in a royal graveyard varied in size, style and type of granite used, depending on when a graveyard was constructed, who initiated its construction as well as many other circumstantial factors.

In Changneung, the queen's tomb was built in 1499, which was twenty-nine years after the king's tomb was built in 1470, and their stone monuments are quite different in style. In Joseon's royal graveyard, tomb sculptures tend to have the same style for both spouses' tombs, if they were built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to determine the dates of the tomb sculptures of King Yejong and his queen, Ansun, I compared them with those in the graveyard of King Deokjong (1457) and Queen Sohye (1504). King Deokjong and King Yejong, two sons of King Sejo, died not long after one another, with the dates of construction of their tombs separated by slightly more than ten years. So was the case with the tombs of their spouses, Queen Sohye and Queen Ansun. Also compared were the tomb sculptures in Gwangneung belonging to King Sejo and those in Yeongneung belonging to King Sejong, as their dates of construction are separated by merely a year or two. Based on the well established tradition of Joseon's royal house regarding tomb sculptures, it seems possible to assume that the tomb sculptures of Changneung were normally be in a style similar to those in Gyeongneung, Gwangneung and Yeongneung, belonging to King Deokjong, King Sejo and King Sejong respectively, and that those of Queen Ansun should be similar to those of Queen Sohye. This analysis, however, revealed that the stone monuments surrounding the tomb attributed to King Yejong were similar in style to those of Queen Sohye's, rather than those of the three other kings' tombs. The stone monuments of these two tombs both showe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first observed around the year 1500. What this means is that the western tomb of Changneung, contrary to the current belief, may not be the tomb of King Yejong, but that of Queen Ansun.

The eastern and western tombs of Changneung have been attributed respectively to King Yejong and his que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inscription on the graveyard stele and *Changneungji*, a record detailing the circumstances of construction of this graveyard. In this paper, I explain how this record, dating from the mid-18th century and not from the 15th century when the graveyard was created, cannot be considered entirely reliable concerning the positions of the two tombs. More direct documentary

or archaeological evidence such as a record dating from the time of construction of this graveyard or the *jiſeok*, the stone tablet buried inside the mound should greatly facilitate the correct attribution of the two tombs. The discovery of the former site of the pavilion which used to stand in front of the king's tomb, before it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place, or the *sillo*, the passage known as the spirit's path associated with the graveyard, for example, could also shed light on the issue. At a time when such archaeological discoveries are yet to be made, and empirical evidence is still largely lacking, this paper tests the validity of some of the widely-accepted assumptions surrounding Changneung derived from documentary sources, by means of a stylistic analysis of tomb sculptures, or in other words, art historical approach. Underscoring the significance of Joseon royal tombs in Korean art history is another goal of this paper.